

장성·영광·고창, 지역사회 상생발전 ‘맞손’

문화·체육·관광시설 감면 혜택 등 협약... 내년부터 시행

장성군과 고창·영광군이 지역민에게 제공했던 유료 문화·체육·관광시설 감면 혜택을 서로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군은 13일 고창군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 세미나실에서 고창·영광군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김한중 장성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강종만 영광군수와 관계 공무원 40여 명이 협약식에 함께했다.

이에 따라 장성군과 고창·영광군은 3개 군 거주민이 지역 내 협력 가능한 유료 시설 이용 시 동등한 감면을 제공한다.

먼저, 장성군은 ▲장성호 수변길 입장료 ▲홍길동체육관 ▲위라벨돌경기장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을 고창·영광군민에게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해 준다.



고창군은 ▲고창읍성 ▲고인돌 박물관 ▲등호 국민여가 캠핑장 ▲보다터캠핑장 ▲선운산 국민여가 캠핑장 ▲운곡 습지 유스호스텔 ▲생활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 등을 지역민과 동등하게 감면한다.

영광군에선 ▲불갑산 상사화축제

▲영광 칠산타워 ▲영광 테마식물원 ▲영광 예술의전당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체육시설 등이 감면 대상이다.

협약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성군과 고창·영광군 간 활발한 인적 교류로 생활인구 증가

와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장성과 고창, 영광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사업이 지역 교류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6월 장성~고창 간 국가지원지방도 15호가 개통되었으며, 내년 초에는 장성 삼계면 부성리와 영광 대마면 성산리를 잇는 깎터널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군과 고창, 영광군이 어깨동무를 하고 미래를 개척하게 됐다”며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장성군과 고창·영광군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역민 감면 혜택 공유로 상생 발전의 물꼬를 튼 장성군과 고창·영광군은 차후에도 다방면에서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장성=심재식 기자

해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신청

해남군은 오는 24일까지 벼 경영안정 대책비 신청을 받는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은 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사업비 57억 2,000만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0.1~2ha까지 직불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논다작물 재배지원 농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참여 농지도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벼 경작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11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은 타 시군 경작 농지 조화와 신청농지 경작 사실 확인 등을 거친 후 1ha당 지급 단가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중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을 통해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쌀의 안정적인 생산·가공·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목포, 겨울철 대비

동파민원처리 상황실 운영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목포시가 수도시설 동파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목포시는 수도시설이 동파되면 수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사전에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목포시는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동파민원처리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겨울철 동파, 동결 예방과 조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와 외부로 드러나 있는 수도관을 현웃, 스티로폼, 형질 등으로 감싸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추위가 지속되면 수도꼭지를 틀어 소량의 물을 흘려보내 동파 및 수도관이 어는 것에 대비할 것을 권장하고, 만약 수도관이 얼었을 때에는 약 20℃의 미지근한 물에서 점차 뜨거운 물로 수도관을 녹여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동파 발생 시 목포시청 수도과로 연락하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동파민원처리 상황실’(☎270-8564)을 운영한다.

/목포=김근호 기자

함평엑스포공원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문체부·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브랜드

경관조명 12종 4424점 등 ‘불거리’ 풍성

함평군은 지역 대표 관광지인 함평엑스포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매년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은 형형색색 아름답게 빛나는 조명이 설치돼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

며 풍부한 불거리를 제공한다.

조명과 조형물은 중앙광장 바닥조명, 쏘나무·희망나무 LED 미디어, 빛 벤치, 터널조명, 건축물 벽면을 활용한 고보 조명 등 공원 전역에 설치돼 있다.

‘대한민국 밤밤곡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개발한 새로운 야간관광 브랜드다.

/함평=김용희 기자

곡성 함허정 일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조선시대 문인 교류 장소

곡성의 유형문화재 ‘함허정(涵虛亭)’ 일대가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예고됐다.

곡성군은 전남 유형문화재인 곡성함허정이 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함허정 일원은 조선 중기 문사(文士) 제호정(濟湖亭) 심광형(沈光亨·1510~1550)이 섬진강 일대 구릉지에 건립한 정자와 주변 지역이다.

함허정은 당시 옥과현감이자 조선 후기 호남 실학자였던 위백규(1727~1798)와 옥과현감 최원, 서화가 신위(1769~1845)를 비롯해 여러 문인들이 교류하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

또 풍수적으로 거북이 용궁을 향해 입수하는 형국으로 거북의 등 위에 함허정이 위치해 있으며 절벽 아래 용소(龍沼)와 구암조대(龜巖釣臺)라 불리는 하중암도(河中巖島)가 있다.

함허정 주변 경관을 예찬한 다양한

시문(詩文)들이 전해지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함허정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곡성=황상민 기자

신안, 소 럼피스킨 확산방지

재난대책본부 본격 가동

신안군은 관내 입자면에서 펄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확산 방지 및 조기 안정화 등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안군은 입자면 한 농가에서 지난 달 31일 의심축 신고 접수 직후 정밀검사를 의뢰·펄피스킨 양성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조동방역팀과 현장조사반을 투입해 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방역조치했다.

이와 함께 방역대를 포함한 예찰지역(~10km 이내) 47호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과 발생농장 전두수에 대하여 살처분 및 렌더링 처리를 완료했다.

군은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우 농가에 방역약품(6.610kg) 등을 공급하고, 공수의 등 점검지원반을 동원하여 펄피스킨 백신접종을 5일까지 완료, 500두분 백신을 추가 확보하여 신생 송아지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강종복 기자

보성, 마을공동체 사업 ‘상복’ 터졌다

우수사례 우수상·영상기록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보성군은 주민들이 함께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의 관심사를 찾아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보성군 마을공동체 사업이 연이어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전라남도가 주최한 2023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 ‘2023년 전남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에 ‘조성면 수촌마을 복지회(대표 주광중)’가 우수마을 공동체에 선정됐다.

이어 지난 10일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전남마을공동체 영상기록공모전’에서도 보사모 컨텐츠(대표 김용백)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조성면 수촌마을 복지회는 ‘수촌마을 자연환경 보존 캠페인’과 ‘물단 숲길 수촌마을’ 브랜드 개발을 목표로 2023년 출범했다.

이번 사례는 마을 전 주민의 참여로 마을 자연 환경보호, 옛 마을

모습 복원을 위한 마을 지도 만들기, 탄소중립 교육,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 등에 성과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조성면 마을 이장이자 수촌마을복지회 주광중 대표의 헌신으로 ▲마을 공동 식사, ▲성인 문화 학교, ▲마을 소득사업 등의 마을 사업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연계 진행해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관심을 일으키며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마을공동체 영상기록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보사모는 ‘귀토백이(귀농귀촌 + 토백이)’라는 제목의 실제 귀촌자의 보성에서의 적응기를 다룬 다큐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에는 마을 명소, 독특한 지역문화, 생태, 인물, 주민 활동과 삶의 현장 등 마을의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보성=장국도 기자

구례,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사업 추진

타지역서 공부하는 대학생 월 5만원 주거비 지원

구례군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에게 월 5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례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을 통해 하반기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군은 이번 기간 중 접수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하반기 6개월분을 12월 말에 개인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 상반기에는 276명에게 75,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원 대상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구례군에 유지할 경우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고향의 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주거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사업 외에도 전입자 종량제 봉투 지급,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오광범 기자

‘제23회 순천 남승룡마라톤대회’ 성료

전국서 5100여명 참가

‘제23회 순천 남승룡마라톤대회’가 지난 11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5,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5,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팔마주경기장에서 출발하여 남승룡로, 동천, 순천만을 따라 5km, 10km, 하프코스를 달렸다.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 아래 참가자 대부분 완주하였으며, 응원하기 위해 함께 행사장을 찾은 가족, 친구, 동료들도 다트게임, 경품추첨,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며 완주하는 참가자들을 축하했다.

하프코스에서는 김보건씨(35세, 서울)가 1시간 14분대로 남자 우승

을 차지했고, 김향희씨(42세, 광주)가 1시간 28분대로 여자 우승을 차지했다. 또 최고령 참가자 김영준씨(84세, 순천)는 10km 코스를 1시간 26분대로 완주해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일본, 중국, 영국, 미국, 케냐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참가해 국제 대회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시민들은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에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명품 마라톤대회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순천=조순익 기자

담양, 道 산불현장 통합지휘 경연대회 ‘대상’

담양군은 최근 백진공원에서 개최된 ‘2023년 전라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각 시군 산불 담당자 2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7명이 한 조를 이뤄 신속한 산불 현장 통합지휘 본부 설치 및 지휘 차량 운영 능력을 평가하고, 진화차·간이수조 설치를 통한 물 공급, 등짐펌프를 이용한 진화 활동까지의 경과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 대회는 점점 커지는 산



불의 규모에 대비해 처음으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와 지휘차량 운영 능력을 포함했다.

담양군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어 진화와 뒷불정리까지 모두 수행하는 산불 진화 인력이며, 군은 산불 조심 기간을 대비해 매년 진화훈련과 장비 교육을 추진하는 등 산불방지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

/담양=조승채 기자